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자재활용책임제

2002년 2월 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그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또는 재활용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용 부과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2001년부터 그간 예치금 대상이었던 폐유리병, 금속캔 등 포장용기와 폐기전품 등 일부 품목을 업계와 자율 재활용 협정 체결 형식으로 시범 적용하여 왔다. 이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페트병, 종이팩, 폐컴퓨터 등 예치금 대상 전품목과 예치금 제외 품목 중 재활용 체제가 성숙되어가는 스티로폴 포장재 등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확대되어갈 예정이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식음료, 세제류, 가전품, 농수산물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등은 예치금 대상이었던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 등 포장용기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재에 내용물을 넣거나 포장하는 제품에도 생산자재활용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금속캔과 유리병 품목에 대해서는 기왕에 금속캔재활용협회(회원사는 소재 및 제관 업체, 식음료 업체, 재활용품 이용 업체), 유리병재활용협회(회원사는 유리제품 제조 업체, 식음료 업체, 재활용품 이용 업체) 등 생산 자단체에 재활용 사업을 위탁해왔기 때문에 이들 품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같은 예치금 대상품목이었던 종이팩이나 페트병의 경우도 품목별 재활용 단체에 식음료 업체가 참여하여 소재 및 포장용기 제조 업체, 재활용품 이용 업체와 함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그간 예치금 대상이 아니었던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이다.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재활용 상황을 보면 페트병과 스티로폴 포장재는 재활용률

도입과 관련 업계의 대응 방안

50% 이상의 수준이나 기타 포장용기는 2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식음료 업체 등 내용물 생산 업체가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재활용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재활용공제조합을 선택하여 회원으로서의 재활용 분담금을 내거나 자체적으로 특정 재활용 사업자와 계약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정해지든 궁극적으로 관련 포장용기의 재활용 목표율 달성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 즉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재활용 목표량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 시민들의 분리배출 협조와 지자체의 분리수거 확대를 위한 인력과 기초적 선별 장치는 확보되었는지?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재활용 시설 능력을 단기간에 증설, 보강할 만큼 경제적 유인책은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재활용 제품의 안정적인 수요처는 가까운 미래에 확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 비용은 적정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현재까지 재활용 실적이 부진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를 위시하여 소재 및 용기 제조업체, 재활용 사업자, 제철 및 시멘트 제조업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원 기구를 설립하여 재활용 기술 개발 투자 및 지원, 수집 처리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생산자 책임 제도의 성공적인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공제조합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단체로는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원은 스티로폴 수지 및 포장용기 제조 업체),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회원은 페트용기의 기타 플라스틱 포장용기 제조 업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식음료 업체 등 재활용 책임자가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주요 역할 외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성공적인 참여를 통하여 단위생산당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제품의 생산, 포장 기능성이 양호하고 자원 사용량이 적은 포장재의 선택 그리고 사용 후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이 저렴한 포장재의 사용 확대, 포장폐기물 중 매립 또는 소각 처리 대상이 최소화 되는 자원 재순환 사회의 구축이 기대된다. ㉔